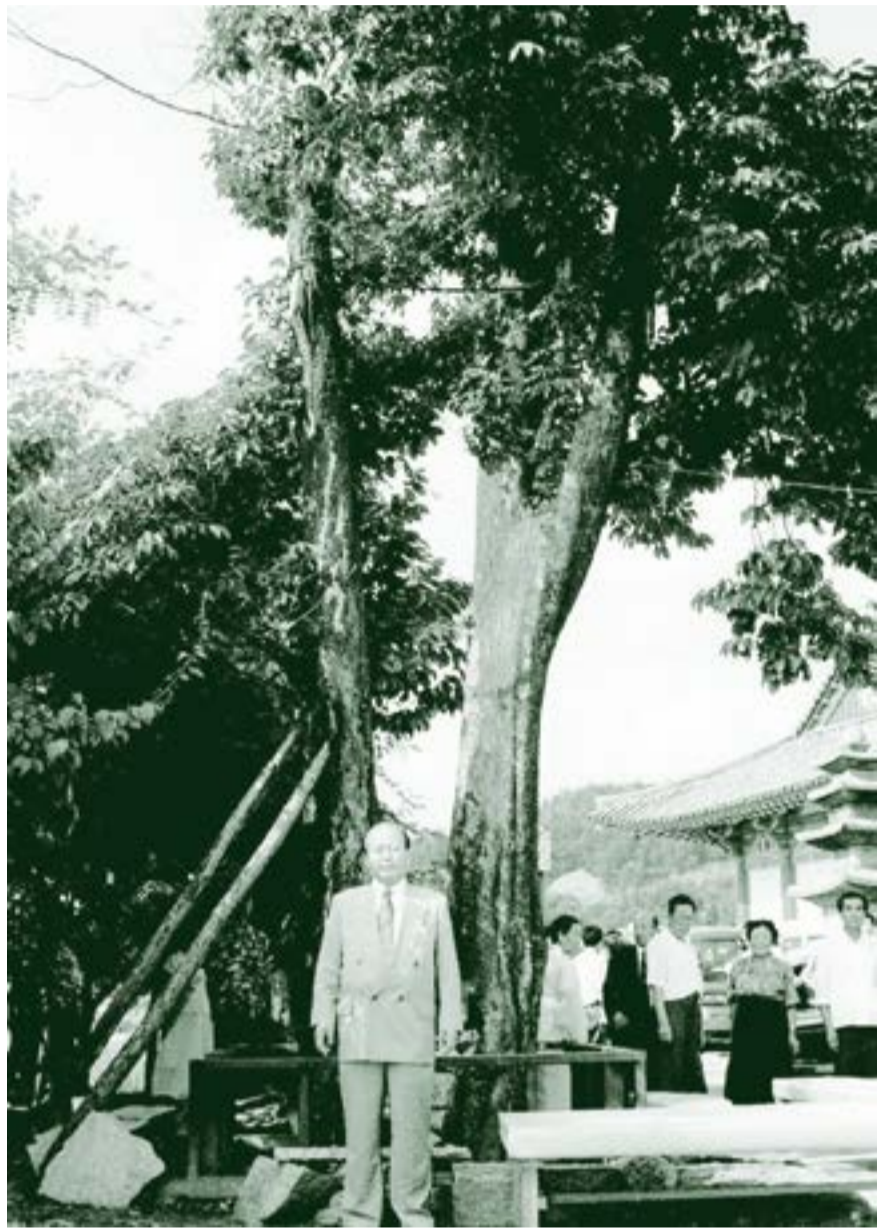


## 감나무에서 엄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미륵불이 출현한 것을 알라

936년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태조 왕건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충남 논산군 천호산 기슭에 개태사(開泰寺)를 4년에 걸친 공사 끝에 건립(940년)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왕건이 적군을 이곳 연산서 멸하고 건국의 기틀을 잡은 후, 이런 인연으로 이곳에 큰 사찰을 세우고 뒷산을 하늘이 돕는다는 뜻의 천호산(天護山), 절은 나라를 열었다는 의미로 개태사(開泰寺)로 했다. 이후 천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당시에 화려했던 사찰의 전각들은 없어지고 기와장과 5층 석탑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가마솥(직경 3m에 둘레가 9m 남짓, 높이가 1m)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천호산 아래에 천호리 마을에서 김대성(金大成) 천황보살(본명: 金光榮, 1883-1969년)이 살았다. 김광영(金光榮) 보살이 48세 되던 1930년 정월, 밤마다 부처님이 나타나 삼존불을 잡에서 깨어나게 하라고 계시(啓示)를 하는 꿈을 꿴다고 한다. 그 꿈이 하도 이상하여 꿈속에서 보여준 장소를 찾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파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삼존불이 묻혀 있었던 것이다. 개태사 미륵삼존불(彌勒三尊佛)은 보물 제219호로 지정된 <석조여래삼존입상>이며 고려 초기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 생미륵불 조화성님이 감나무에서 엄나무가 나온 나무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계심. 생미륵불께서는 개태사를 대입자년 1984년과 임신년 1992년에 방문하셨다.

천호리 마을에서 개태사 삼존석불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임진왜란 때에 개태사 스님들이 부처님께 호국 염불을 올리고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왜적이 개태사로 몰려와 절간 문을 열 어졌고 행패를 부렸다. 대웅전에 다다른 왜병이 대웅전 문을 열었다. 그러자 대웅전 안에서 광채가 뿜어 나왔다. 개태사 삼존석불에서 빛이 나온 것이었다. 왜병들은 불빛이 너무 강해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를 본 나머지 왜병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고 한다.

흔히 개태사 삼존불은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단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는 부처로 알려져 있다. 반드시 한 가지만 마음속으로 말을 해야 함으로 욕심 많은 사람은 감히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다. 하지만 소원이라고 해서 다 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나쁜 일에 쓰이는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개태사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수령이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1970년대에 그 감나무의 굵은 가지 사이에서 엄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개태사에 오랫동안 다닌 장보살은 이렇게 말한다. “엄나무가 자랄 때, 감나무는 이미 오래 전에 죽어 고목이 되어 있었지

요. 그런데 죽은 고목에 엄나무가 자라나고부터 그 감나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감나무에는 전해 내려오는 일화도 있는데, 일제하에서 독립될 당시 주지승의 어머니(김광영 보살)가 그 절에서 수도를 하면서 매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던 중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에는 ‘감나무에서 엄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미륵불(彌勒佛)이 출현한 것을 알라’고 했다는 것이다.

죽은 나무에 뿌리를 내린 엄나무, 그 엄나무로 인해 감나무는 다시 살아났다. 부활한 것이다. 엄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죽은 감나무를 다시 소생케 하는 기적을 연출하면 서까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로부터 인간은 나무를 숭배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위 인류사 특집집단이 어느 일정한 수목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신생아의 태반을 나무 밑에 묻거나 죽은 자의 영혼이 특정 나무와 결부시키는 풍속에서 인간과 수목 사이에 흐르는 생명의 교류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마을을 지켜주는 수백 년 묵은 고목(古木)이 있고, 마을 사람들은

開花 佛如優曇華(우담화 삼천년 개화 불여우담화)라고 하였으며 격암유록 말운론에도 ‘釋迦之運 三千年 彌勒出世運(석가지운 삼천년 미륵출세운)’이라고 하였는데, 곧 우담화는 석가모니 이후 삼천년 만에 꽃이 피는데 이때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다는 것이다.

1997년 7월 곤지암 우리절에 모신 금동여래 불상 우편 가슴에 핀 24송이의 꽃이 최초의 우담바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개태사 감나무의 굵은 가지 사이에서 나온 엄나무에 우담바라 꽃이 제일 먼저 피었다고 한다. 우담바라의 주인공이 되는 생미륵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20세기 후반이 되는 1980년도에 생미륵 되는 이긴자 구세주가 나올 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담화가 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우담화(優曇華)가 제일 먼저 핀 때가 개태사라는 절입니다. 그 절 안에 들어가면 굵은 몇백 년이 된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나무 가운데가 썩어서 이제 굴처럼 파여 있는데 그 파여 있는 속에서 엄나무가 났습니다. 엄나무가 나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바로 그 엄나무 위에 우담화가 핀 겁니다.”

그리고 생미륵부처님께서는 2003년 2월 14일 설교시에 “이 사람이 84년도에 개태사에 갔던 것입니다. 개태사에 우담화가 피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개태사에 갔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1984년은 대입자년에 해당되는 해요, 180년 주기의 삼원갑자(三元甲子: 삼원갑 60년, 중원갑 60년, 하원갑 60년의 세 묶음으로 나뉜다)의 삼원갑이 시작되는 해이며 무극대도의 대운이 열리는 해이다. 성경적으로는 육천년이 끝나는 때가 대입자년(주피해)으로 6천년이 차는 1984년이다. 고서에는 1984년 대입자년에 이 세상이 끝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 만약 이 세상의 마귀권을 멸해버리는 이긴자가 안 나오면 이 세상 멸망의 기간이 1984년도가 마귀의 일차 예정일이었었다. 그리고 마귀의 마지막 예정일이 1992년도이다. 그런데 1992년을 착각을 하고 프랑스의 노스 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는 1999년 7월에 인류가 멸망당한다고 예언했는데 이것은 연대를 잘못 짚은 것이다. 정확히 좌악 세상이 끝나는 해는 1992년이다. 그러므로 1992년에 마귀가 멸망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멸망을 당하든지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긴자 생미륵님이 나온 고로 하나님께겐 승리뿐이요, 마귀가 멸망 당하는 날만 날로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말해서 북방불기 3000년이 1973년인데 이후 7년이 지난 불기 3007년이 되는 1980년도에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신다고 한다. 불경 열반경 2권에 ‘優曇華 三千年의 우두머리 되는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림국의 계두왕이다. 그러므로 계림국이 후에 신라가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러므로 미륵불은 한국에서 출현하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담화가 한국 땅 전국 곳곳에 연이어 피어나는 것은 석존의 예언이 정확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불경에서 말하는 미륵부처님의 성씨**  
天書錄人間善惡券心報應  
천조록인간선악노심보응  
(미륵하생경)  
하늘의 조씨가 인간의 선악을 심판한다.

**赦罪天書救衆生**  
사죄천서 구중생  
(미륵진경)  
하늘의 조씨가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제한다.

**2. 미륵부처님의 증표, 감로**  
是處無死 即是甘露 是甘露者 即真解脫  
如來成就 如是功德 (사처무사 즉시감로 시감로사 즉진해탈 여래성취 여시공덕)  
<대반열반경 5권 여래성품 4-2>  
이곳에는 죽음이 없으니 곧 이것이 감로다. 이 감로가 참 해탈이며 (미륵)여래는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했느니라.\*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6]

#### ‘우주에서 제일 강한 신(神)’

우주에서 제일 강한 신이 나라의 의식의 신이다.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주를 이겼다가 되고 사망권세(死亡權勢)를 잡은 마귀를 이겼다가 되는 것이다. 사망권세를 쥐고 있는 나라는 의식이 바로 붉은 용 마귀다.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기고 누구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나를 이기게 되는 것이

다.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될 때에 비로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단코 나는 영생할 수가 없다.

자존심이 바로 자신을 죽이는 자 귀신이요, 붉은 용 마귀요, 나를 망하게 하는 마귀 영이다. 나라는 의식이 제거될 때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영생체로 화해지는 것이다.\*

이기는 삶

### 뛰어나고 싶으면

뛰어난 사람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역경에 굴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며, 존경받는 리더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음의 열 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뛰어나고 싶으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둘째, 뛰어나고 싶으면 고도의 집중력으로 한 곳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것은 몇몇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3년에서 10년 동안 오직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뛰어나고 싶으면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 뇌의 신비 중의 하나는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뇌의 유연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같은 것을 반복할 때 뇌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도나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뛰어나고 싶으면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한다.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비가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기가 온다고 해도 극복할 것이며 아무런 성과가 없는 무료함이 지속된다고 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뛰어나고 싶으면 머리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의욕과 열정은 뇌의 용량이 크고 작음,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보통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사실 매우 머리가 좋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여섯째, 뛰어나고 싶으면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의 표층에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야, 6시 반 정도는 관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일곱째, 뛰어나고 싶으면 내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 ‘내적인 힘’이란 흔들리지 않는 주관을 의미한다. 내적 힘을 키우려면 시시각각 들어오는 산만한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해야 내적 힘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는다. 여덟째, 뛰어나고 싶으면 꼭 운동을 해야 한다. 당신의 뇌를, 특히 앞쪽 뇌를 보호하고 인지(認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우울해지지 않는다.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운동을 통해 깨끗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다. 깨끗한 뇌혈관은 당신의 뇌세포에 풍부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준다.

아홉째, 뛰어나고 싶으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진다. 세상과 사람을 상대로 살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만이 꾸준히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열째, 뛰어나고 싶으면 진리란 무엇인가, 나는 무얼 하려 하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한다.\*

### 미륵불의 출현 장소, 성씨와 증표

**1. 경전 상의 미륵불 출현장소**  
將來之世有佛名彌勒出現於世  
장래지세유불명미륵출현어세  
爾時國界名鷄頭王所治處  
이시국계명계두왕소치처  
(增一阿含經 49卷 非常品 49)  
장래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는데, 미륵이라 하니 세상에 출현하실 때, 그 나라의 이름은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인가?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미륵불이 출현하신다 했으니 계두왕(鷄頭王)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신라 탈해왕(脫解王)이 아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림(始林) 숲속에서 닭이 울기에 이상히 여겨 찾아가 보니 거기에 큰 금 껍데기 나무에 걸려 있고, 그 밑에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금껍데기를 열어보니 안에 옥동자가 있어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다. 이를 기념하여 시림(始林)을 계림(鷄林)이라 바꿔 부르고 나라 이름도 계림으로 불렀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삼국사기, 삼국유사 참조). 그러므로 계두왕이란 계림국

###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 since 1981

이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이 신이 아니라 바람도 신이라고 한다. 바람도 신인데 그 신을 그대로 명령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자 아니면 태풍을 막을 수 없다고 한

다. 이긴자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바람도 이길 수 있고 사람에게 있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고로 <이긴자, 승리자>이다.\*